

뉴스홈 | 최신기사

## 24일 만에 코트 밟은 KB손보, 삼성화재 꺾고 선두 추격

송고시간 | 2022-03-08 20:50

하남직 기자  
기자 페이지



기뻐하는 KB손해보험 선수들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코로나 브레이크'를 마치고 24일 만에 실전을 치른 KB손해보험이 값진 승점 3을 추가하며 선두 대한항공과의 격차를 좁혔다.

KB손해보험은 8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남자부 방문 경기에서 삼성화재를 세트 스코어 3-0(25-20 25-20 25-23)으로 꺾었다.

2위 KB손해보험은 5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승점 53(16승 14패)으로 한 경기를 덜 치른 1위 대한항공(승점 56·18승 11패)을 추격했다.



KB손해보험은 2월 12일 한국전력전 이후 24일 만에 코트에 섰다.

프로배구 남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월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정규리그를 중단했다.

후인정 KB손해보험 감독은 경기 감각을 걱정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아 휴식과 개인 훈련을 병행한 노우모리 케이터스에 여전히 펄펄 날았다.

이날 케이터스는 블로킹 득점 2개, 서브 에이스 2개를 포함해 25점을 올렸다.

레프트 김정호도 8득점 하며 힘을 보탰다.



1010회  
모토 당첨결과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KB손해보험 세터 황택의는 센터 박진우(9점)와 양희준(3점)의 속공도 적절히 활용했다.

삼성화재는 정규리그를 재개한 3월 5일 대한항공과 맞붙은 뒤, 이틀을 쉬고서 KB손해보험과 상대했다.

고희진 삼성화재 감독은 "5일 대한항공전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 세트도 얻지 못하고 경기를 떠났다.

이날 신장호는 14점·공격 성공률 52.38%로 분전했지만, 러셀이 15점·공격 성공률 37.5%로 부진해 삼성화재 쌍포의 위력이 줄어들었다.



#### 서브하는 케이타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KB손해보험은 1세트 시작과 동시에 삼성화재 황경민의 서브 범실로 행운의 득점을 했다.

이어 케이타가 연거푸 러셀의 공격을 블로킹했고, 양희준의 속공으로 점수를 보태 4-0으로 달아났다.

삼성화재는 러셀과 황경민, 신장호의 측면 공격이 통하면서 1세트 초반 부진을 딛고 19-20으로 추격했다.

그러나 케이타가 높은 타점을 이용해 오픈 공격을 성공하고, 러셀의 후위 공격은 상대 블로커의 손에 닿지 않고 라인 밖으로 벗어나 KB손해보험이 22-19로 달아났다.

케이타는 23-20에서 연속 서브 에이스를 꽂아 넣으며 세트를 끝냈다.

2세트 승부는 중반에 갈렸다.

KB손해보험은 10-9에서 김정호의 킷 오픈으로 득점했다.

삼성화재는 러셀의 후위 공격으로 반격했지만, 공이 KB손해보험 두 명의 블로커 사이로 빠져나간 뒤 엔드라인 밖에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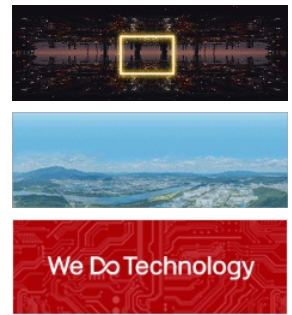
러셀의 후위 공격 범실에 이어 황택의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서 KB손해보험은 13-9로 도망갔다.

고희진 감독은 "자신 있게 하라"고 선수들을 독려했지만, 점수 차는 줄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3세트 18-21에서 정성규의 연속 서브 에이스로 20-21까지 추격하고, 21-22에서 황경민의 오픈 공격으로 22-22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KB손해보험에는 '해결사' 케이타가 있었다.

케이타는 22-22에서 오픈 공격을 성공하더니, 23-23에서는 후위 공격으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다.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KB손해보험은 24-23에서 홍상혁의 강한 서브로 삼성화재 수비진을 흔들었다.

삼성화재는 공을 넘기기에 급급했고, 케이트는 강력한 후위 공격으로 경기를 끝냈다.

jiks79@yna.co.kr

🔗 관련기사

여자배구 포스트시즌 취소 위기...중단 기간 이틀 더 늘면 '말'(종합)

OK금융그룹, '봄배구' 희망 살렸다...우리카드 꺾고 4위 도약

KGC인삼공사, 또 집단 감염...여자배구 재개일 14일→16일 연기

여자배구 GS칼텍스, 추가 확진자 발생...선수 19명 중 18명 감염

다우디 30점 폭발...한국전력, 현대캐피탈에 진땀송 '4위 도약'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8 20:50 송고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췄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7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 144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2

💬 66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3

💬 61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4

💬 56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

💬 40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뭐하고 놀까? #홍→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우스

뉴스+ 이슈동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계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상기홍 [편집인] 조재희  
Yonhapnews